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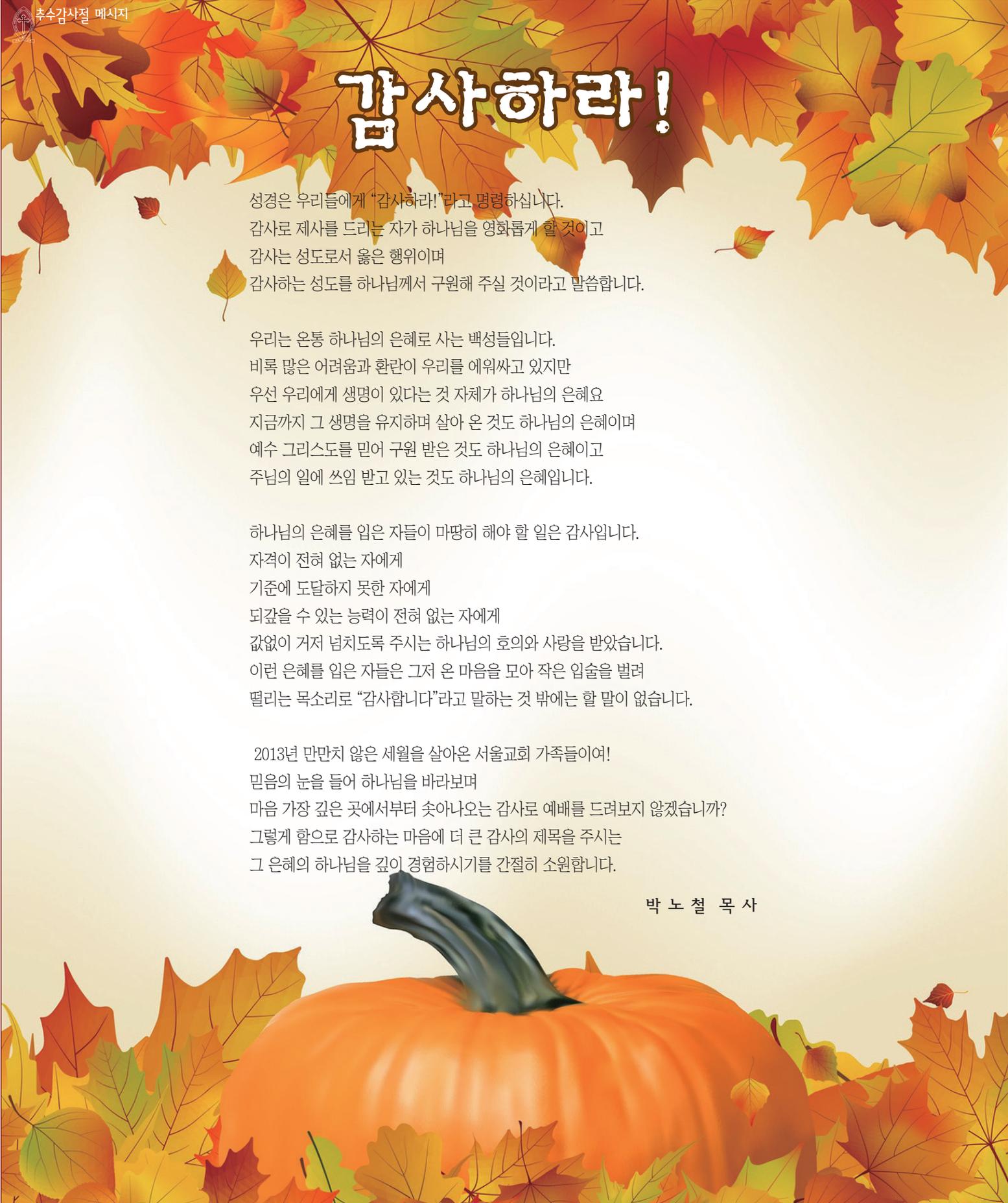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레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추수감사절 메시지

감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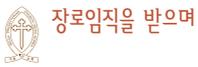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감사는 성도로서 옳은 행위이며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우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게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았습니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저 온 마음을 모아 작은 입술을 벌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2013년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온 서울교회 가족들이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불탄 포도넝쿨처럼 보잘 것 없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지열 피택장로

감히 장로로 부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겸손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맺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교회와 성도 그리고 담임목사님을 충실히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 하겠습니다.
-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 나의 주장을 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 맡은 직임을 충실히 섬기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의 일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 성도의 화합과 일치와 되는 일에 그리고 친교하며 소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교회의 웃어른을 잘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보듬어 나가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빈약한 자 구제의 일과 연약한 지체의 돌봄 그리고 환우들을 돌보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이동만 피택 장로

부족하고 나약하기만한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몸되신 서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피택장로로 세워 주심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 피택 장로로서 다짐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목회 정책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동역할 것입니다.

둘째, 당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정책 안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각종 회의를 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당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귀히 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셋째,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겸손히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저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순종으로 행할 것이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송인권 피택 장로

불탄 포도넝쿨 처럼 보잘 것 없고 쓸모 없던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어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지난20여 년간 한결 같은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사도바울과 같이 자신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박노철 담임목사님, 지도하시고 교육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신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피택장로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섬기기로 다짐 하였습니다. 또 내가 나를 전제로

있는 저희를...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고 다짐 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지혜롭게 보필하여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서울교회 목표를 잘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착하고 충성 되어 섬기어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 힘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근신하고 늘 깨어있어 양 무리의 본이 되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섬기'라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직분에 임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종으로...



안인호 피택 장로

부족한 저에게 서울교회 장로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주신 이종윤 원로목사님,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사랑의 충고와 권면해주신 선임 장로님들, 기도로 도와시고 격려해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교육에 힘쓰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과 나눔의 교회, 따뜻한 배려와 친근한 교제가 가득한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선임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협력하여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신 말씀대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장로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 17:10) 아멘.

이제 첫발을 내딛는 초보 장로의 초심이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년 전 쯤 부터 딸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곤 했지만 등록한지는 얼마 안된 새가족부 성도입니다.

친정과 시댁이 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며 교회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던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들이 다 제이야기 같았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곤했었습니다.

그러던중 몇달 전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할수 있는일이라곤, 책보는것외엔 제가 할수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보게되고, 태어나 처음으로 기독교 방송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병실에서 보낸시간들이 하나님과 저의 소중한 시간들이었던거 같습니다.

어느 날은 병실에서 창밖 하늘을 바라보는데 살아오면서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푸른나무들이며 예쁜 구름, 바람에 움직이는 나뭇잎, 사람들의 걸어다니는 모습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체할수 없을 눈물과 감사함도 모른체 원망과 분노, 불만에 가득한 제 모습이 너무나 잘못했고, 용서해달라고 평평 울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이제 알았을까 라는 생각에 누군가 저와 같은분이 있지는 않을까 가까운 주변사람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VIP 새생명 축제에 저의 아들과 조카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을 저를 통해 저희 가족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한사람 한사람 이 자리에 나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가족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사 임직을 받으며

헌신과 순종

손태현 피택집사



제일 먼저 안수집사의 직분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0대 중반에 학습세례를 받고 60대 초반에 안수집사에 피택 되었습니다. 늦어 부끄

러운 마음도 있지만 감사가 앞섭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 질 대로 피폐해져 잠 못이루던 새벽, 처와 아이들이 다니는 서울교회에 아주 가만히 나와 본당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부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황량한 별관에 홀로 남겨진 내가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앞이 안보여서 이리 저리 헤매고 있을때,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그리고 겸손과 순종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처음엔 봉사라고 시작한 일들이 제게는 위로가

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기회가 되고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처음 낮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신 새가족부의 선생님들, 힘

들때마다 위로해 주신 좋은 집사님들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교회학교의 여러 성경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구간사로서 보람된 일, 흥해작전, 사명자대회 선교회, 열린 바자 등의 여러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여 은혜받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감사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선한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권사 임직을 받으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바칩니다

최종희 피택권사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택하여 자녀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권사임직을 받게 하시니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명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권사로서의 자격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교만하지 않으며 일구어안하지 않으며 권사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며 교회가 부르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을 것을 다짐해보며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 하게 하심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신실한 믿음과 겸손과 순종함으로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덕이 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지혜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도 요한 칼빈의 고백을 묵상하며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주님께 나의 마음을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1)

(문 110) 하나님께서 아함의 집을 멸하시기 위해 예후를 들어 쓰셨습니다.(왕하9:6-10, 10:30) 그러나 후일 그를 저주하셨습니다.(호1:4)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완전히 수행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왕하9:7-8) 이세벨과 아함에 의해 죽은 수많은 선지자들(왕상18:4, 13)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후가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숭배자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 그의 왕관은 보호되었고 4대에 이르도록 그의 후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후 자신은 나라의 통치자나 방어자로서 성공적 치리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854B.C보다 조금 전에 아함의 한 군사였습니다.(왕하9:25) 엘리야의 명을 따라 엘리사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함의 집을 멸하였습니다. 그는 바알신의 제사장이나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왕하10:18-28) 이것은 예후가 아함의 권속들을 멸하도록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 예고된 것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좇기보다 단순한 의무감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후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 하지 않고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왕하10:29-31) 그러므로 선지자 호세아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으나 자기 관심을 갖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행하였기 때문에 호세아는 예후의 왕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호1:4-5)

예후의 이 같은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13:1-2)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도 피를 흘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에도 신앙의 순수성을 갖고 진실하기보다는 자기관심에 취한 하나님의 종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피 흘림이 마침내 예후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증손자 스가랴가 그의 생일 파티에서 자기 심복 기병대장 살룸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예후가 변함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권면의 글 - 교우들에게

서울교회 교우들이여!



김학현 목사 (일심교회)

복된 임직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서울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게는 '성도여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 예식서"-임직예식 순서에 따라 물음에 예!라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임직자들을 본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선택을 하였고, 대단한 서약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을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하며,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후3:8-10)이며,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딤후3:11)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장로는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집사 권사는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큰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 성사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로만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축하하고, 축하받을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서약한 대로 책

임있게 존경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존경하세요. 쉬지 말고 위로하세요. 범사에 순종하세요.

그런데 한가지 꼭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을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물건으로 말하면 하자가 있는 상품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품은 채 관계를 맺습니다. 누군가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환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은 빨리 깨져야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나쁜 버릇,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지워지지 않는 흠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결점투성이인 저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협력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더하여 권면합니다. 임직자들을 위하여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어주세요.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항상 사랑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믿어 주세요.

끝으로, 리더쉽의 원리에는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가 지도자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서울교회를 위해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명단

13대 피택집사 (연령순)

신삼철 이갑수 오상수 손태현 임경락 신태봉 최성을 이용성 전인상 박종만 최근보 이근홍 손용문 박찬양 박광옥 고윤상 박흥래 류상철 주차흠 정진문 박정수 최용준 장창수 박종권 한선규 송영준 박상훈 이근일 심군섭 이근대 윤요섭

12대 피택권사 (연령순)

구연복 박동희 김정자 이화숙 유화자 김화정 문옥희 홍명숙 이선자 이정임 이태인 이순열 이계자 권성자 김형희 노의정 백기선 강신행 홍정란 이귀숙 박동호 정준혜 박화실 나영숙 한은미 유기순 주정희 최세정 김정영 선혜영 이난희 황현숙 이경실 김자숙 김인영 차인화 박성미 나미경 정승자 김은희 정은순 노진아 공명례 김애자 이태정 장애순 이미송 안미경 김은희 김복희 최봉희 권소희 송미라 유혜영 김인숙 유안순 조미영 노정숙 박준자 김숙자 전광환 최금숙 최종희

교회 설립22주년 기념 시

서울의



윤영남 권사(10교구, 시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 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중심이 된 찬양과 기도의 세 기둥

진정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소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은혜의 통로에서 새롭게 하소서

사랑으로 겹겹질을 벗기신 님이여!
허망의 껍질을 벗을 때 영혼의 세계 열리듯
행함이 있는 믿음만 추수마당 알곡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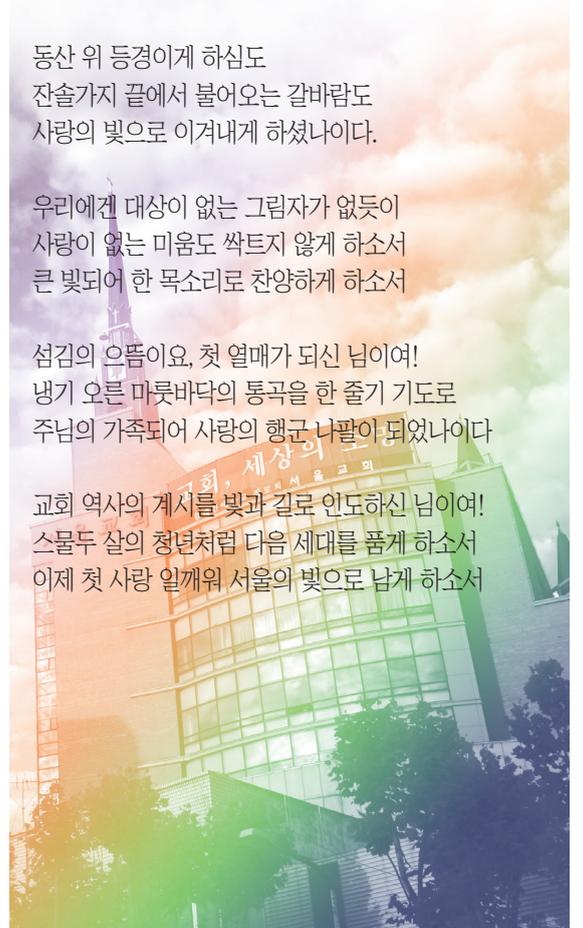
한 순간 배신으로 치닫는 광경도
지축을 흔들었던 광풍도 오직 말씀 뿐
"내가 참사랑으로 껍질을 벗기겠노라"

동산 위 등경이게 하심도
잔술가지 끝에서 불어오는 갈바람도
사랑의 빛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상이 없는 그림자가 없듯이
사랑이 없는 미움도 싹트지 않게 하소서
큰 빛되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소서

섬김의 으뜸이요, 첫 열매가 되신 님이여!
냉기 오른 마룻바닥의 통곡을 한 줄기 기도로
주님의 가족되어 사랑의 행군 나팔이 되었나이다

교회 역사의 계시를 빛과 길로 인도하신 님이여!
스물두 살의 청년처럼 다음 세대를 품게 하소서
이제 첫 사랑 일깨워 서울의 빛으로 남게 하소서



교회설립22주년 감사 및 추수감사에배

주일예배 시 - 성찬식 거행

찬양예배 시 - 향존직 임직식 거행

오늘 우리교회는 교회설립22주년을 감사하는 한편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과 필리핀, 팔라우, 베트남 태풍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구제헌금도 드린다.

찬양예배시간에는 교회설립22주년 감사예배 및 추수감사예배로 드리며 지난 5월 실시된 공동의회를 통해 세움을 받은 향존직의 임직식을 거행한다. 오늘 세움을 받는 향존직은 12대 장로 4명, 13대 집사 31

명과 12대 권사 63명이다.

임직감사예배에는 우리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종의 좌우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며, 강남노회장 강홍구 목사(샘물교회)와 김학현 목사(일심교회)가 각각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된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이들이 서울교회의 기둥으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제7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오늘 오후2시30분, 101호

2006년에 조직된 사랑부 특별활동반이 그간 꾸준히 이어져 올해로 벌써 제 7회 천사들의 음악회가 열린다. 워십, 중창, 벨플레이트, 난타, 피아노 독주, 시낭송, 핸드벨 / 멜로디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준비된 성극 및 전체 합창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제23사단 진중세례식

비전2020 운동본부(부장:이갑진 장로)는 제23사단 진중세례식을 11월 30일(토) 오후 2시에 거행한다. 교회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한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4일(주) 서울교회 설립감사 및 임직예배에서 설교한다. 25일(월) 한장총 총회에 참석한다. 26일(화) Save N.K. 통일대비 남북한 전문가포럼 종합보고대회에서 개회사를 한다.
- 개업 : 15교구 신두호 집사 카페 두디드 서초동 1542-1 서초역 2번 출구
- 득남 : 6교구 이승철 2집사 우스라 집사 (우상태 집사 방승희 권사 장녀 가정)
- 득남 : 12교구 이경진 성도 하영인 성도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장녀 가정)
- 득녀 : 11교구 심현진 성도 조동희 집사 (강창숙권사 조성일 성도 장녀 가정)
- 중간식당봉사 : 한나전도회(11.24) 리브기전도회(12.1)
- 금주의 식사, 떡, 과일 제공 : 임직자 일동 23일(토)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떡 제공 : 피택집사, 피택권사 일동

2014년 미얀마 겨울 비전 트립팀 파송 희망자 모집

2월 3일(월)~11일(화) 미얀마 양곤지역

우리교회가 처음 시도하는 겨울 비전 트립(지도장석남 목사)지역을 미얀마로 정하고 2014년 2월 3일부터 11일까지 8박 9일 동안 우리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가 섬기고 있는 양곤지역 인근 가정교회(23곳 중 4~5곳)를 중심으로 어린이성경학교, 청소년사역, 노후시설 보수사역, 우물파기 기공, 현지 신학교 방문등의 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이재울 선교사가 진행하는 미얀마 근제자훈련캠프도 계획되어 있어 겨울 비전 트립팀

과 협력하여 양곤지역 사역을 지원하게 된다.

소요경비는 자비량이며 모집대상은 어린이 성경학교 등 사역 팀 10명 내외를 청년부 중심으로 희망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는 12월 15일까지 사무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갖 우상과 불교사원이 가득한 전통적 불교국가 겨울 비전 트립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뿌려지기를 기대한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시작 한다

필요한 사람은 1인 2KG씩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시작한다. 2부 예배 후 1층 웨스트민스터 홀 옆에 있는 쌀통 앞에서 테이프 커팅 후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사랑의 쌀 운동 본부가 펼치는 여러 가지 사업(사랑의 쌀 화환, 미자립 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중증장애아동 전문병원 건립 등) 중 하나로 독거 노인, 미자립 복지시설, 무료급식 단체등 사회 소외계층에 쌀을 지원하는 나눔 운동이다.



료급식소 주방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비 있다.

성도들은 상시로 쌀을 가져와 1층에 있는 쌀통에 부어놓을 수 있으며 교회는 9층 쉼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로 필요에 따라 쌀을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쌀을 필요로 하는 성도는 사무국을 통하여 가져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2kg 들이 비닐 봉투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 행사에는 강남구청장이 함

께 할 예정이다.

우리교회는 지난 6월에도 사랑의 쌀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부평역과 장기동 소재 사랑의 빨간 밥차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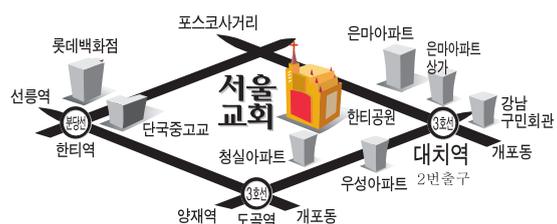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설립 22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아름다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항상 감사가 풍성한 인생과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3. 임직 받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 충성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